



덕진동 마을계획단, 덕진광장·아울터 일대 청소

덕진동 마을계획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덕진광장, 덕진 아울터 등 덕진동 일대에서 환경정비를 전개했다. 이날 대청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그 간 덕진동 마을계획단에서는 관내 청소 골목길 잡초 제거, 취약지 꽃 심기, 취약 환경에 노출된 저소득층 주거 환경 정비 등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덕진동 마을계획단 진희천 단장은 "그동안 방치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 도로변 무단 투기 쓰레기를 모두 하나 되어 열심히 청소함으로써 거리가 한층 밝아진 것 같다"며,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우리 덕진동 마을계획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어린이들 방송 체험 기회 제공

어린이창의체험관, 전북기자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은 지난 8일 어린이들에게 방송 미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송국 운영을 위해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종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새롭게 조성한 JBC(JeonBuk Children)방송국에서 진행됐으며, 상호간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다.

JBC방송국은 1인 미디어 방송이 인기가 높아지고 어린이들이 장래희망으로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등 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직업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TV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재미도 느껴 볼 수 있도록 신규 조성한 체험시설이다.

양구의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이번 협약이 JBC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지리산농협, 환경정화 봉사

NE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는 지난 8일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 고향주부모임 남원연합회(회장 김점순), 농가주부모임 남원연합회(회장 홍옥자), 농신보 남원센터(센터장 남용수)와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변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깨끗한 농촌을 가꾸기 위해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농촌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권오정 시지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아름다운 농촌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중증장애인 일상복귀·주거개선프로그램 협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중증장애인의 일상복귀를 위해 주거환경평가 및 주거 내 안전교육 맞춤형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 '중증장애인의 일상복귀를 위한 주거개선프로그램' 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과장 원유희)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관장 강병은)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일상복귀를 위한 주거개선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거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일상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민·관 주거환경 전문가 △장애인 복지기관 등 다학제 간 팀워크로 진행돼 올해 15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개선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연계하고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및 지역 지원 활용 등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책임자인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 김기욱 교수는 "장애 발생은 장애 이전의 개선되지 않은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 중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본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 중 불편함을 줄이는데 일조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며 "병원에서의 재활 과정 이후 가정에서도 원활한 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회 기자



임실농협, 영농지원 발대식·폐기물 수거 캠페인

농협임실군지부(지부장 이진산)는 지난 8일 임실군 두곡리에 위치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과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임실군지부와 전북축산사업단, 임실농협(농가주부모임) 및 임실군 사회단체(지원봉사센터, 가족센터)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임실군의 청년농사 기원을 위해 심민 임실군수가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진산 지부장은 "임실군 영농지원 발대식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장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실농협과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통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농협은 임실군내 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임실농가 영농수거 캠페인을 통해 임실군 농가소득 증대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농지원 발대식 및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지역 농축산물 중심으로 공급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실=진홍영기자



평화1동, '독거어르신 찾아가는 생일파티' 추진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은하)와 평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귀덕)는 지난 8일 홀로 사는 어르신을 모시고 독거 어르신 찾아가는 생일파티 행사를 시행했다.

독거 어르신 찾아가는 생일파티는 평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2년 연간사업으로 80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어르신 20명을 선정하여, 2022년 3월부터 매월 생일이 도래한 대상 가정을 방문해 생일을 축하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김윤상 기자

인사

전북도청 ◇전직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4월 10일자)

결혼

▲송동준(42전남/전북고객본부 근무, 송영창·김정미씨 아들)·신수진(임실 운임면사무소 근무, 신정복·제미자씨 딸)양= 일시: 10일(토) 오후 5시, 장소: 그랜드힐스톤 본관 2층 대禮홀

완산구,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 시행

완산구청(구청장 김병수)은 단정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인 없는 간판 및 불법간판 정비 사업을 4월중 신청 접수 받아 5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노후 및 파손된 간판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29일까지 완산구청 건축과(☎ 063-220-5551) 또는 완산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다. 광고주 및 관계자도 신청 가능하다.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 특성상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접수된 물량은 확인과정을

거쳐 대상을 확정하여 5월중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윤 완산구 건축과장은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전주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산구청에서는 연초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 연간 로드맵을 구성하여 연중 특정시기(분기 명절 및 선거기간 등)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주간에 연중 가동하며, 이번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에 이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